회의록\_9차

|  |  |  |  |  |
| --- | --- | --- | --- | --- |
| **팀 명** | 독강조 | | **일 시** | 2021년 4월 14일 23시 |
| **회의방식** | 비대면 (google meet) | | **참 석 자** | 길민호, 김부용, 김채민, 이하임 |
| **회의 내용** | | 1. 용어 정리/통일  1. 대안 흐름/예외 흐름 이전처럼 B02에서 -한 경우로  2. 화면에 표시된다 - 사후조건에서 시스템의 상태가 아니라면 전부 빼는 걸로 -> 기본 케이스로 변경  (민호님 작성 유스케이스 기준)  2. 계획서 작성 파트 분배  1. 목적, 조직도, 생명주기 모델(민호)  2. 도구(하임)  3. WBS (채민)  4. 산출물 관리(부용)  3. 발표 방식  각자 파트를 나눠서 스크립트를 만들고 개인이 녹음 | | |
| **변경사항** | |  | | |
| **다음 회의까지 일정** | | 1. 각자 담당한 계획서 파트 작성.  2. 발표 대본 작성 | | |
| **질문 사항** | | 질문 (명세서 작성과 계획서 장성 관련해서 질문)  1. 예외 흐름과 대안 흐름의 구분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B02에서 해당 예약 상태의 예약 목록이 없는 경우에 시스템이 목록이 없다고 알린다." 라는 문장을 기존에는 예외 흐름에 넣었는데 대안 흐름으로 바꿔야할까요?  예외흐름은 사용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대안 흐름은 사용자의 선택에 있어서 다른 대안을 시스템이 제공할 때 라고 생각해서 작성했는데 맞는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2. 계획서에서 위험관리 마지막 부분은 작성을 해야하는 건가요? | | |

|  |  |  |  |
| --- | --- | --- | --- |
| **차후 회의 일정** | 비대면 (google meet) | **일 시** | 2021년 4월 16일 12시 |